



싱그러운 봄의 미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름난 담양 메타세쿼이아 거리에 봄빛이 완연하다. 수줍은 듯 연녹색 잎을 슬며시 드러낸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걷는 이들 이객들의 얼굴에도 새 봄의 미소가 가득하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2012 엑스포 여수로... 불붙은 유치전

1 외교역량 집중해야

경제력으로 98개국 마음 잡아라

권역·인지도 열세, 회원국 투자 계획으로 극복을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지난 9~13일 우리나라와 여수의 2012 세계박람회 준비 실사를 모두 끝냈다. 이에 따라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오는 11월 27일 파리 BIE 총회까지 7개월에 걸친 박람회 유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숙원사업이자 국가적 대사인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외교력 강화 ▲인프라 확충 ▲해외 네트워크 풀가동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1월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142회 BIE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로코와 폴란드간 지지국 투표로 선정된다.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개인자의 위인들이 투표를 해 결정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98개 회원국 대표의 비밀투표에 의해 정해진다.

현재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권을 갖고 있는 BIE 회원국은 98개국. 폴란드가 속해있는 유럽권이 36개국으로 3분의 1이 넘는다. 이어 북미·중남미권이 25개국, 모로코가 들

어있는 아프리카·중동은 22개국이며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대양주는 15개국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최대 경쟁국으로 떠오른 모로코 지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중동권에서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종적인 결속력이 강해 모로코의 기본표는 꽤 단단하게 뭉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는 모로코는 아프리카·중동에서 세계박람회를 처음 치르게 된다는 명분을 회원국에게 강조할 수 있고 개최 예정지 탕헤르는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인지도도 꽤 높은 편이다.

반면 교통기반시설 등이 크게 부족하고 2004년 기준 1인당 GDP가 1천 437달러로 경제력이 3국 가운데 가장 열세여서 개최 능력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동구권인 폴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로 EU 및 가장 많은 3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권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력(1인당 GDP 5천472달러·한국 1만 4천162달러)과 국가적 역량 결집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외교가

의 분석이다.

따라서 한국이 2012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로코나 폴란드보다 훨씬 우월한 경제력과 첨단 과학 기술을 무기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3개국이 경합을 벌이는 상태에서 권역별 회원국 숫자는 상대적으로 폴란드와 모로코가 많고, 경제력에서 한국이 우월한 실정을 감안하면 1차 투표에서 단번에 개최국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해 개최 후보국이 없으면서, 우리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미·중남미와 아시아·대양주 회원국을 기본 지지국으로 설정, 확실한 고정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박지영기자 unipark@

靑, 송재구 사퇴 종용 파문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수석회의서 결정 전화...靑 “노코멘트”

청와대가 송재구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임기(2년)가 정해진 대통령 직속기구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송 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가 송 위원장의 사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문화도시 추진 방향과 위원회의 집행 가능 강화를 둘러싼 송 위원장과 정부 간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15일 “최근 청와대가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광주지역 인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달 청와대 모 수석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청와대 관계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면서 “이후 지난달 29일 같은 수석실에서 전화가 와 ‘도와 달라’는 말과 함께 사표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관계자가 전화를 통해 ‘청와대 수석들의 회의 결과 송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도출했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의를 마쳤고, 지역 각계 인사들로부터도 의견을 취합해 대통령에게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문화도시조성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완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인데, 오히려 ‘도와 달라’며 몰려나 달라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송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로 처리해달라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유망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동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동보실 1588-5051 ▶ T.(061)360-5000

社 告

제24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이건철 박사 ‘世化시대 광주·전남 과제’

〈세계화+지방화〉

18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8일 오후 6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24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견철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사로 나서 ‘世化(世化)시대에 대응한 광주·전남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성원 바랍니다.

- 일시 : 4월 18일(수) 오후 6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세화시대에 대응한 광주·전남의 과제
- 강사 : 이견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6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CFP®·AFP® 인증자를 만나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퇴직은 빨라지고 살아갈 날은 많은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치의의 두드 이체 건강한 가정 경제를 위해 재무설계 전문가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골드 스탠다드”라고 극찬한 CFP® 인증자를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투자·보험·부동산·세무·상속 등 국제기준의 전문지식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춘 최고의 재무 주치의, CFP®·AFP® 인증자... 국내에서도 1,300여명의 CFP® 인증자와 15,000여명의 AFP® 인증자가 은행·보험·증권·FP전문회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준비 CFP®·AFP® 인증자와 함께 하세요.



무료 FP강연회 및 상담회 개최 안내 2007.4.18(수) 오후 2시~6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참가인원: 선착순 200명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Tel. 02)3276-7636/E-mail free@fpkorea.com(신청시 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및 표정은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FPSB)가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표(CFP 표지)인. 한국 FPSB는 FPSB와의 협정에 의한 대한민국내 CFP 표지의 전용 사용권자임.



AFP®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 상표는 한국FPSB(FPSB Korea)가 소유하고 있음. 한국FPSB는 대한민국내 AFPK 자격표지의 전용사용권자임.